

오피니언

다산포럼

염재호



에 최근에는 국립대학과 언론사가 합작하여 유사한 시험을 만들어 상입화 대열에 끼어들었다.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영어의 열풍은 지나쳤다.

유치원부터 영어학원에 다니고 미국 학부모 유학생이 7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최근 외교교통부의 한-EU FTA 국회비준 과정에서 한글 오역문제로 시끄러웠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그 정도면 됐다. 오히려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할지 모른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법학전문대학원에 가겠다고 준비하는 학생을 만났다. 혹시 변호사가 되면 안정된 직업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그 일을 위해 변호사가 되는 길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다고 한다.

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성적이 40점에 서 50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한 반에 약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매일 수업을 듣는다고 한다.

영어, 그 정도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도를 넘어서 대학 강의의 40% 이상이 영어로 진행되고, 국민이나 교사 과목에서도 영어 강의를 의무화하는 지나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NGO 칼럼

노인숙

북한 이탈주민들 성공 정착 하려면



노인숙

경제적 문제 등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인 질병과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전혀 다른 체제와 환경 속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일찍이 노력만으로 효과적인 통합을 기대하기 어려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가 구축됐고 민간단체들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현재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광주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약 600여 명은 한국 사회 내의 소수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오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분단시대의 한국사회를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한 것은 본격적인 통일이 앞서 민족통합을 미리 준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좋은 기회이다.

기고



박용수

고등학교 10시 하굣길을 바꾸자

과 후문의 도로주변에 병목현상이 유독 심하다. 학생들의 자율학습이 끝나기 때문에 마중 가는 차량, 귀가 중인 차량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10시 정각에 하교를 한다. 1-3학년 학생들이 일제히 정·후문으로 쏟아진다. 한 학년이 350여 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대략 1000여명의 학생들이 일시에 후출처로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서 통학버스가 출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 혼잡과 지체가 계속되었다.

10시, 학교에서 10시는 정전 어떤 시간이고 세상의 시간으로 또 몇 시일까. 오전 10시는 잠자는 시간이고 오후 10시는 깨어나 하교하는 시간은 혹시 아닐까.

노인 자살 예방대책 미흡...일자리 확대 등 사회 관심 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출생이 선택이 아니듯 죽음 또한 선택이 될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무관심 속에 노인 자살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자살이 급증하자 정부는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급속히 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관심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노인 자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인구 가운데 60%가 자녀 없이 홀로 살아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양 문제를 가

스, 그런데 정작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행되는 시내버스로 하교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 무엇보다 시내버스가 한개밖에 하교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고, 그런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복잡하다는 이런 저런 이유로 시내버스를 피한다.

사막한 하굣길을 바꾸면, 그래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토론이 이야기하며 우정도 키우고, 정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주면 광주가 훨씬 인성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로 지급합니다.

시설

빈 라덴 사망 테러리즘 종식 계기 돼야

세계를 경악시킨 2001년 9·11 테러의 배후 인물인 오사마 빈 라덴이 사망했다. 바라 오사마 미국 대통령이 테러 조직 알 카에다를 이끌고 있는 빈 라덴이 1일(현지시간) 사살됐다고 발표해 그의 죽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오히려 빈 라덴 사망이 새로운 테러를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의 죽음이 알-카에다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은 분명하지만 빈 라덴이 '순교자'로 부각되면서 감경 탈레반 세력이 다시 발호하며 대대적인 반격을 감행할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

임기말 개각, 이번 만든 '친정체제'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주 내 5~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종국 규모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그들만의 개각'이 되지 않는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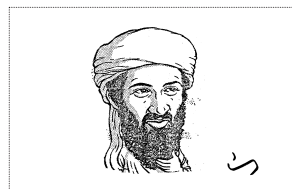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완패한 데 이어 이번 재보선에서도 참패한 것이 '고소영'에서 선진국민연대로 이어지는 '끼리끼리 인사'와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인해 소통과 통합이 막히고 결과적으로 민심 이반을 불러온 게 아닌가.

無等鼓

지난 10년간 미국 대 테러활동의 가장 큰 목표는 오사마 빈 라덴의 체포에 모아졌다. 그가 2001년 발생한 9·11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의 지도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체포 투신했다. 당시 소련과 냉전상태에 있던 미국은 이예이(以夷制夷) 차원에서 아프간 반군을 지원했다. 미국은 '적(소련)의 적'인 빈 라덴에게도 우호적이었다.

오사마 빈 라덴



빈 라덴의 사망은 언뜻 미국의 큰 승리로 보인다. 그러나 10년을 끌어온 미국과 미국으로서 10년 동안의 숙원이 풀린 것이다.

Table with columns for newspaper name,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